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Good Morning ASIA

2014 / 01 / Vol.241

아, 시야視野

광야 건너온 풋사과

판매대, 지붕, 간판… 모두 필요 없다.
네 바퀴만 있으면 그만이다.
노점은 목이 생명이다. 고객 따라 이동하면 그게 특급 목이다.
낡은 자동차 트렁크에 싱싱한 사과를 싣고 산 넘고 들을 넘는다.
그에게는 실크로드를 횡단하던 유목민의 피가 흐른다.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1 / 2014 / 01

CONTENTS

04 **응시凝視하라, 2014** 아시아의 얼굴들
06 **2014 Great Asia 로(路)드** 중국 서안
10 **Asiad News** 아시아 43개국이 모여, 인천AG를 논하다 외
12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필리핀
14 **에티켓** 나이프와 포크, 외국인을 위한 작은 배려
15 **언어권별 회화** "안녕하세요"
16 **하나되는 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년의 미소 외
18 **Special Theme** 2014 시작
24 **포커스** 2014 인천시정 키워드
달라지는 새해 시정
30 **2014년 말의 해** 인천의 승마장
인천 역사 속 말(馬)
36 **추억의 공간** 동네 이발관
40 **News Brief** 월미은하레일 '레일바이크'로 재탄생
44 **Council News**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46 **내 길 내 일** 도예가 고상순
48 **문화뉴스** 시립예술단 '2014 신년음악회' 외
50 **생활정보** 공연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외
53 **이달의 서평** 파이브 데이즈 외
54 **인천 통통(通通)** 인천다움 느끼는 2014년을 준비
56 **신년사**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에
58 **줌인** 2014 인천시 사자성어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1월 2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허종식(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조병석(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 T. 032-423-1988

Cover Story

2014년은 인천에게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인천이 생긴 이래 역사상 가장 큰 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이에 본지는 인천은 물론 아시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올 한 해 기존의 '굿모닝인천'과 함께 '굿모닝아시아'를 편집해 제작합니다.

꽃 팔러 갑니다. 비록 제가 파는 것은 꽃 한 송이지만 이것을 전해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다발 기쁨과 환희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보폭을 더 넓혀 서둘러 장터로 가야겠습니다.
(미얀마 양곤, 사진 유동현)

우리시에는 모두들 부러워하는 하늘(공항), 바다(항구), 땅(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인천이 세계인들의 좋은 투자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민들도 인천 하늘과 앞바다를 누비는 갈매기처럼 힘차게 비상하길 소원합니다.
(인천 해안, 사진 김성환)

응시凝視하라, 2014

신(新) 아시아 시대. 미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기(氣)가 아시아로 힘차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인천이 있습니다.

2014년 세계의 이목이 인천으로 집중됩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회원국 선수, 임원 1만3천명과 운영요원 3만여 명이 참가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올해 지구촌 빅 이벤트 중의 하나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아시아인의 평화와 정서 통합에 기여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인천만의 고유의 색깔을 담아내는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대회, 스마트 대회, 친환경 대회 등 세 가지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삼각 테마입니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아시아의 확실한 리더 도시로 발돋움하며 아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2014 Great Asia 로(路)드

중국 서안

진시황의 '불로초'는 눈 부릅뜬 병마도용

西安

아시아는 '거인'이다. 40억 인구가 창출하는 경제와 문화의 힘은 엄청나다. 아시아인의 화합과 평화의 대제전 아시아경기대회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아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그 대회에 대한 지구촌의 이목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국가 및 도시를 시리즈로 탐방해 그 잠재력과 미래의 희망을 확인한다.

글 사진. 김성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진시황릉
총 면적 : 56.25㎢ / 릉을 수리하는 데 걸린 시간 : 38년
동원된 인부 : 72만명 / 지금까지 릉구에서 발견된 배장갱, 배장 묘 : 600여 개

고도(古都)이자 미래도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빈으로 중국 성서성 서안 지역을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그 많고 많은 도시 중에 왜 서안이었을까. 서안은 5000년 중국대륙 역사의 고도(古都)로 중국인의 자부심이며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도시다.

이제 서안은 역사적으로나 미래 전략적으로나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 역사에 대한 지식이 짧은 사람이라도 진나라의 수도였던 장안(長安)과 양귀비, 진시황제 삼장법사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인다. 그것은 서안이 위대한 이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6천여 개의 병마도용(무덤 주위에 묻어 두던 인형)으로 이루어진 지하군단은 진시황제의 사후를 위해 그들을 갱 안에 가두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서안은 진시황제의 병마용을 보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아시아 최고의 관광도시 중 하나로 부상했다.

진시황은 사후에 대한 두려움과 영생을 꿈꾸며 병마용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은 그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서안이라는 도시는 물론 중국의 핵심적인 문화유산을 안겨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시황이 꿈꿨던 불로초는 결국 수천 년이 흘렀어도 사라지지 않은 '병마도용'이었던 것이다.

진시황의 위대한 지하궁과 병마용

세계 8대 기적 혹은 '20세기 고고학 역사상 위대한 발견 중의 하나'라고 불려지는 진시황릉과 병마용갱은 중국 섬서성 서안시 임동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1.5㎞떨어진 곳에서 진 병마용갱이 우연히 발견되면서 세기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진 병마용갱의 발견, 발굴 그리고 전시로 인하여 진시황릉은 일찍이 1987년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해 인류문화 유산 명록에 등재되었다.

진시황(B.C.259~210)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봉건왕조의 개국 황제다. 그는 진 장양황의 아들로 13세에 왕위에 올랐고, 39세에 칭제하였다. 그리고 B.C 230년부터 B.C 221년까지 한, 위, 초, 연, 조, 제 등 여섯 나라를 차례로 멸하고, 마침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된 다민족적 중앙집권제 봉건국가인 진조를 건립하기에 이른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만일 진시황을 알기 원하다면 서안에 가서 시황제릉과 병마용을 보라고'. 그만큼 병마용은 인류역사상 불가사의하리 만큼 대단하고 경이로운 유물이다. B.C 221년, 만 50세가 된 진시황은 그 자신이 이루어 놓은 광할한 영토 내에서 최후의 순유를 하던 도중 사구(지금의 하북성 광종현)에서 병사하였다. 진시황의 유해는 함양으로 운반해 진시황릉에 장사를 지냈고, 방대한 병마용 군단이 이 천고일제인 진시황을 따라 지하세계를 정복하러 가게 되었다.

봉토 밑의 지하궁은 현 지표면으로부터 약 30m 깊이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에는 정방형에 가까운 지하 성벽이 둘러쳐져 있다. 지하궁 내부의 모습에 대하여 사마천의 '사기, 진시황 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진시황이 막 즉위했을 때 여산을 천착하여 분묘를 건조하였다. 그는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 각제에서 모은 70만여 명의 형도로 하여금 삼층이나 되는 샘을 뚫고 구리를 녹인 물을 부어 틈을 막은 후 자신의 외관을 그 곳에 두게 하였다. 또한 궁관, 백관 그리고 진기한 보물들을 가져다 그 곳에 가득 채워 놓았다. 게다가 공장(장인)에게 명하여 기관부가 딸린 활을 만들게 하여 만약 어떤 자가 도굴하러 이곳에 들어오면 맞아 죽게 하였다. 또한 수은으로 백천, 강하, 대해를 본떠 천문 도안으로 장식을 하고, 그 아래로는 지리 도형으로 배치했다."

1997년 이후 진흥에서의 중요한 발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600여 개의 병마용갱 중 가장 큰 곳이 1호 갱인데 동서 방향의 직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다. 그 길이는 가로가 230m, 세로가 62m이고, 면적은 1만4천260㎡다. 특히 매장되어 있는 병마들은 모두 다른 표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화청지(華淸池), 양귀비의 향기를 찾아

양귀비(719년~756년)의 실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양귀비는 당 현종의 후궁이자 며느리이며 이름은 양옥환이고 현종과 무혜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수황(이모)의 비로 17세때 궁에 들어 왔으나, 시와 노래에 뛰어나고 보기드문 절세의 미인으로 현종의 눈에 든다. 현종은 자신의 아들인 수황(이모)에게서 며느리인 양귀비를 빼앗아 자신의 비로 삼았다. 그리고 양귀비는 뛰어난 미모로 일본의 '오노노 고마치'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4대 미인(양귀비, 서시, 왕소군, 초선)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화청지와 양귀비는 무슨 연관이 있는걸까?

당나라 때로 거슬로 올라가 보자. 양귀비는 원래 현종의 친아들인 수황의 아내였다. 그러나 아버지 현종은 한눈에 양귀비의 미모에 빠져들게 된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현종과 양귀비는 이곳 화청지에서 세기의 러브스토리를 만들었다.

아내를 아버지에게 빼앗긴 수황, 자식뻘 되는 양귀비와 사랑에 빠져 스스로 몰락해 간 현종, 당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던 중에 결국 양귀비는 현종의 지시에 따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현종과 양귀비의 러브스토리는 결국 비극으로 끝난다. 양귀비의 스캔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세기의 로맨스가 되었다.

화청지에는 몇 개의 사원 이외에도 양귀비가 사용했던 목욕탕의 흔적이 있어 양귀비의 향기를 느끼려는 많은 여성 관광객들이 몰린다. 화청지는 주나라 때부터 3천년의 역사를 지닌 서안의 대표적 명소이자 온천지로 그 명백을 이어오고 있다.

아시아 43개국이 모여, 인천AG를 논하다

선수단장 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개최한 '제17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세미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OCA 회원국 전체 45개국 가운데 43개국의 선수단장과 대표 등 약 160명이 참가했다.

각국 대표들은 세미나 첫날 서구 주경기장, 메인미디어센터(MMC), 구월아시아드선수촌 샘플하우스 등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을 방문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대회준비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둘째날 열린 본회의에서 대표들은 입·출국, 교통, 숙박 등 대회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각국 방문단에게 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선수단장 세미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다. 아시아 각국에 이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국제부 458-2454

필리핀과 아시아로 하나되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해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동참해 모은 성금 1만 달러와 의류 1천500여 점을 필리핀올림픽위원회에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김영수 조직위원장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속히 아픔을 딛고 일어나길 바란다."는 위로의 뜻을 전하였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인력지원부 458-2081

당신을 인천AG 자원봉사자로 모십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일반행정, 안내, 교통·환경정리, 통역 등의 분야에 1만3천500여 명이다. 만 16세 이상 내·외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vt.incheon2014ag.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올 4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문의 : 2014인천AG조직위 인력지원부 458-2949

꿈나무들에게 인천AG를 알려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인천 관내 24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시아경기대회 홍보활동을 펼친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17일 동막초교와 중앙초교를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총 6천717개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 홍보영상 상영, 인천아시아드송 '온리 원(Only One)' 댄스 시연과 교습, AG 퀴즈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홍보부 458-2372

소셜미디어 부문에서도 '금메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6회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에서 기타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조직위는 소셜소통지수(SCSI)를 바탕으로 내부, 고객, 전문가, 운영성 등 4단계 평가 과정과 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직위는 현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웨이보 등 국·영·중문 11개 채널과 내외국인 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홍보부 458-2381

인천AG의 모든 것이, 이 한 권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6개 종목의 경기기술규정집을 지난해 12월 2일 발간, 배포했다. 이번 발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헌장 제81조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기 1년 전에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대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집은 △대회 종합정보 △경기 기술정보 △종합 경기일정 △경기장 배치도 등을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 대회 참가국들의 지침서로 활용한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경기기획부 458-2232

온라인 홍보단 활약, 올해도 기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2013년 온라인 홍보단 해단식'을 가졌다. 제8기 블로그 기자단 30명과 제2기 SNS서포터즈 50명으로 구성된 2013년 온라인 홍보단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소식을 조직위 공식 블로그와 개인 SNS채널에 기재해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였다. 이날 해단식에는 기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6명에게 우수 기자상을 수여하고, 수료자 20명은 명예기자로 위촉해 내년에도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문의 : 2014 인천AG조직위 홍보부 458-2382

Photo News

"인천AG 외치며 함께 달려요~"

해외홍보 펀 런(Fun Run) 현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해외홍보행사인 '펀 런(Fun Run)'은 아시아인들에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알리고, 아시아 미래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 개최하는 '즐거운 달리기'다.

지난 해 10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2번째 행사를 마쳤으며, 올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전까지 아시아 6개 도시를 돌 예정이다.

문의 : 2014인천AG조직위 국제부 458-2452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다. 아시아 각국의 찬란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전통·종교 등이 한자리에 모이고,
우정과 화합을 통해 아시아가 하나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아시아 곳곳의 문화와 풍습,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아시아를 알고 느껴보자.

필리핀

불꽃놀이와 12가지 과일로 맞이하는 새해

글. 메리 자스민 리(필리핀 결혼이민자)

새해가 되면 마음이 설렌다. 지난해 묵은 일들을 뒤로 하고, 뭐든지 새로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의 새해맞이는 정말 다양하다. 각 나라마다 다양하고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웃 어른들께 세배를 한다든지(한국), 친구 집 문 앞에서 오래된 접시를 깬다든지(덴마크)하는 다양한 새해맞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면서도 옛 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이 접목된 필리핀 특유의 보편화된 가톨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또 중국 화교들의 문화도 널리 퍼져있어 매우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새해를 맞이한다.

필리핀 사람 대부분은 새해 첫날(New Year's Day)을 서양과 같이 성대한 축하일로 여기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필리핀 전통음식을 차려서 '자정식사'를 하면서 뜻깊게 맞이한다.

필리핀에는 연말연시에 관한 많은 미신이 있다. 필리핀 미신의 대부분은 풍성한 양식과 부의 축복을 바라는 희망에서 유래했다. 필리핀인들은 축복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12월 31일에는 문과 창문이 열려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열려있는 문과 창문이 행운을 집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은 동북아시아의 말레이 군도에 위치하며 7천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모가 제일 큰 세 개의 섬은 루손 섬, 비사야스 섬, 그리고 민다나오 섬이다.

이들은 필리핀 군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전체 규모가 30만㎢인 것으로 측정된다. 필리핀은 1565년 스페인의 식민 지배 하에 놓였으며, 이는 3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되었다. 1896년 필리핀 혁명이 일어난 끝에 종식되었지만, 필리핀이 독립을 이룬 것은 1946년이며, 1992년에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이루었다. 마닐라는 현재 필리핀의 수도다. 타갈로그어는 필리핀의 공식 언어다. 필리핀 사람들의 약 92%가 기독교인으로,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인들 중 83%는 천주교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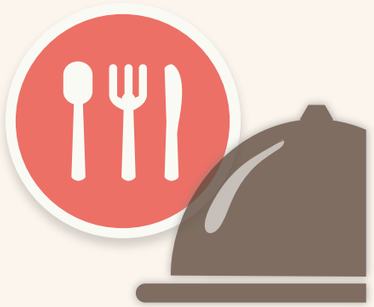
특히 새해에 오렌지, 사과, 포도 등 동그란 모양의 과일 12가지를 큰 접시에 담아 12일 동안 놓아둔다. 동그란 과일은 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는 12달, 즉 한 해 동안 돈이 들어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주머니에 동전 12개를 넣고 소리를 내며 흔드는 풍습도 있다. 이때 주머니에 넣어둔 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날 돈을 쓰게되면 일년 내내 돈을 쓰게 될 것으로 여겨 사용하지 않고 잘 보관한다.

필리핀은 새해를 맞이하기 며칠 전부터 새해 첫날이 밝을 때까지 밤이 새도록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를 한다. 불꽃놀이의 양은 한국에서 간혹 축제 때 보는 불꽃놀이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불꽃놀이를 발사한다. 불꽃과 총포를 발사하면서 요란하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오래전에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 이는 소란스럽게 새해를 맞이해야만 사악한 기운과 불행을 멀리 떨쳐 버릴 수 있으며 새해 일도 잘 풀린다고 믿는 데서 시작했다.

또다시 한국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해, 2014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이프와 포크,
외국인을 위한 작은 배려

글. 제럴드 얼슬렛(Gerald Ursulet)
하얏트 리젠시 인천 식음료 부장



한국의 관문, 인천에서 산 지 1년 반이 되었다. 처음에는 마냥 낯설기만 했던 이곳도 이젠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가끔 식당에 가면 외국인으로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식사 예절은 특히 동서양의 문화가 많이 달라서 한국 친구들에게 자주 물어보곤 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배려에는 친절이 담겨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주문을 받을 때 조금만 설명해 주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신발을 벗고 식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서양사람들에겐 신발을 벗고 식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식당 직원들이 미리 설명해 주면, 서양인들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음식을 공유하는 문화 역시 서양사람들에겐 생소하다. 서양은 보통 개인별로 음식을 주문하기 때문에, 찌개나 전골처럼 한 그릇에 2~3인 분이 나오는 음식을 주문한 후 많은 양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이 미리 음식의 양을 알려 주면 한 사람이 2인 분짜리 찌개를 주문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서양 역시 한국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미덕이므로, 알맞은 양의 음식을 시켜 남김 없이 먹는 한국 문화에도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행 중에 감동은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포크와 나이프를 구비해 놓고 원할 때 제공하거나, 식사를 마무리할 때 다양한 디저트 메뉴를 준비해도 좋을 것이다. 음료 역시 한국 식당에서는 녹차와 같이 차로 우려낸 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이 방문할 때는 일반 생수도 함께 제공하면 좋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려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은 서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경험이다. 특히 이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더욱 빛이 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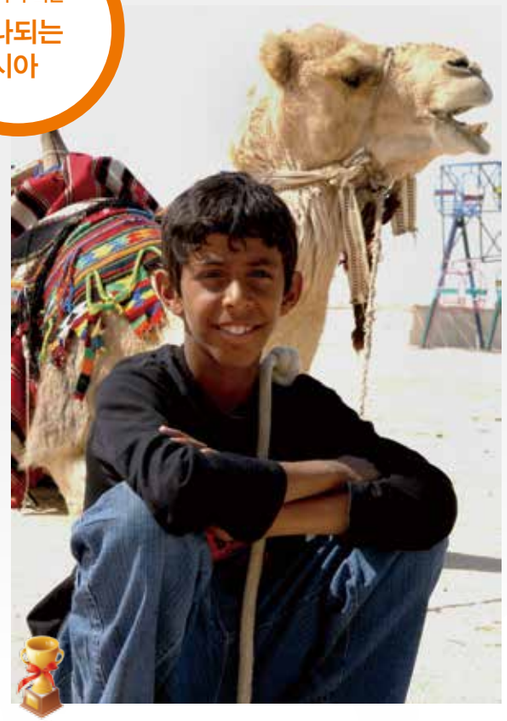
언어권별 회화

2014년, 우리시에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라는 메가 이벤트가 열린다. 손님을 맞는 인천. 집안의 주인으로 역할과 배려에 세심히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인천을 찾는 아시아권 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유용한 아시아 언어를 배워보자.

국 가	외국어 표기	외국어 발음
중국어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한자)你好! (병음) nǐ hǎo	니 하오
일본어	こんにちは。	콘니찌와
마인어	Selamat Sejahtera	스라맛 스자태라
베트남어	Xin chào, anh(남) / chị(여자)	자우 (남자) 아잉 / (여자) 지
미얀마어	မင် လော	민갈라바
이란어	سلام	살럼
몽골어	Сайн байна уу	산 바이노
태국어	สวัสดี	사왓디
라오스어	ສະບາຍດີ	싸바이디
네팔어	नमस्कार	너머스때
싱할리어(스리랑카)	wdhqfn`jka	아유보완
아랍어	السلا	앗쌀라무 알래이꿈
러시아어	Здравствуйте	즈드라스트부이쩨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장원

사우디아라비아 소년의 미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선한 눈빛 따듯한 미소는
하나입니다.

하성빈 계양구 봉오대로

새해 소망을 담아

필리핀의 성당에서 촛불을 켜고 소망을 비는
현지인들의 모습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지금 새 희망을 빌어 봅니다.

신민섭 남동구 소래역로

일본축제의 열기, 송도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송도에서 열린 인천관광레저스포츠페어
현장입니다. 일본의 공연단이 일본
축제 '산사오도리'를 주제로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조준일 부평구 굴포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노래하는 거리의 악사들

태국의 짜뚜짝 시장에서 거리의 악사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신나게 연주하는
그들을 보니, 귀도 즐겁고 마음도 즐거워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김지연 연수구 선학동

시원한 발마사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오나 싶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여행만 오면 내 발과
다리는 늘 혹사를 당합니다. 다리야,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내일도 쉼 없이 걸어보자.

김승미 서울시 송파구

도요토미 몸에 오사카성 얼굴

오늘은 무엇을 새롭게 볼까 고민하던 중
내 눈에 들어온 오사카성.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아는 얼굴이 있으면 사진은 달리
보이네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오사카성이
나만의 사진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는
현장입니다.

백유진 연수구 옥련동

유럽의 거리? 아니, 중국의 거리

유럽풍의 건물과 조각상, 분수가 어우러져
유럽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상해
신티엔디입니다. 상해에서 가장 고풍스런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김지웅 시흥시 연성동

여기가 어디?

〈지난 호 정답〉 홍예문

구본녀 경기도 김포시 / **임세라** 연수구 새말로
전예빈 경기도 의정부시 / **문인숙** 남동구 간석로

첫

First

1

Start

2014

첫 걸음, 인생의 큰 '거름'

날마다 떠오르는 해이지만, 새해 첫날에 맞이하는 해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어제의 수면 아래서 '오늘' 위로 뜨겁게 솟아오르는 태양은, 두 손 불끈 쥐고 또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기에.
2014년 1월 1일 새해 첫 날, 서쪽 바다에서 해를 기다립니다. 오늘 만나는 빛은 그저 일출의 순간이 아닌, 앞으로 더 찬란히 빛날 내일의 희망입니다.
인천은 올해 인구 300만 시대를 열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GCF사무국 운영 등 세계인이 주목하는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호흡 한번 깊게 하고 발걸음을 성큼 내딛을 때입니다.
힘찬 첫 걸음은 인생의 큰 '거름'이 됩니다. 여기, 각자의 자리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들과 만납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첫 도전

한나래(21)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아시아 정상을 향해, 강 스매싱

발그레한 볼 수줍은 미소, 아직 소녀티를 벗지 않았지만 눈빛은 살아 있다. 인천시 소속 테니스 선수인 한나래(21)는, 가슴에 첫 태극마크를 달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다.

"꿈은 커야 하잖아요. 올해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권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예감이 좋다. 한 선수가 인천시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한 지난해, 인천 여자 테니스 선수단은 제94회 전국체전 테니스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첫 금메달을 땄다. 그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인천시테니스협회로부터 '올해를 빛낸 인천 테니스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홉 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처음 라켓을 손에 쥔 소녀는, 지금 세상을 향해 강 스매싱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코트 위에서 열정 어린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테니스 선수의 꿈 키워,
이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메달에 도전한다

첫 걸음

세계의 인재들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로 모이고 있다. 한국뉴욕주립대(SUNY Korea)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들어선 첫 글로벌 대학이자, 한국에 설립한 최초의 미국 대학 캠퍼스다. 이곳에서 미래의 방글라데시 대통령을 꿈꾸는 청년을 만났다.

더 높은 곳으로 도약을 앞둔 방글라데시는 한국이 지난 50년간 이루어낸 놀라운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살만(Salman · 20)은 한국의 어제를 방글라데시의 '오늘'로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인천으로 왔다. 그의 꿈은 방글라데시의 대통령이 되는 것. 포부가 당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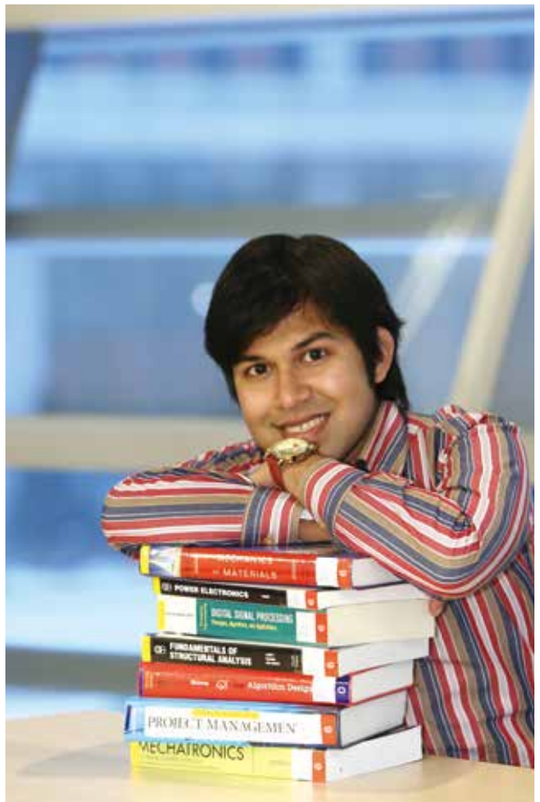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인천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게이트웨이(Gateway)입니다. 글로벌도시 인천에서 세계 각국의 친구들과 미국 명문학교의 학과 과정을 배울 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한국과 미국의 학문과 문화를 배워 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활짝 웃는 그의 얼굴 위로 비추는 겨울 햇살이 유난히 빛난다. 꿈으로만 머무르지 않을 그의 밝은 미래를 예감해 본다.

살만(2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 학생

인천에서 만난, 미래 방글라데시 대통령

인천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이트웨이(Gateway),
한국 경제발전의 노하우
방글라데시에 전하고 싶어



첫
인사

팜티뚜엣(21) 결혼이주민 여성

베트남에서 온 '우리 이웃'

"베트남 엄마를 두었지만 / 당신처럼 이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 중략… 스무 살이 넘으면 군대를 갈 것이고 / 세금을 내고 투표를 할 것입니다. / 당신처럼."

한 공익광고 메시지가 다문화 사회를 사는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고 있다. 팜티투엣(Pham Thi Tuget · 21)은 우리시의 자매도시인 베트남 하이퐁에서 온 결혼이주민 여성이다. 사촌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지난해 가을에 인천으로 왔다. 머나먼 이국땅에서의 삶이지만, 순간순간을 함께 할 가족이 곁에 있어 행복하다. 그녀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인천외국인종합상담소를 찾았다.

살아 온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국경을 넘어 따듯한 마음은 하나. 더욱이 아시아라는 공통의 정서가 흐르고 있어 왠지 살갑고 친근하다. 가까이에 결혼이주민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 보자.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 부비며 살아갈 '우리 이웃'이니까.

베트남 하이퐁에서 인천으로,
설레었던 첫 만남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첫
다짐

한국의 첫 UN 산하 기구이자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기구 GCF, 인천에

헬라 체크로흐 GCF(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GCF, 지구 살릴 '초록빛 숨결'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순간 지구는 가쁜 숨을 내쉬고 있다. 미안하다. 하지만 지구를 살릴 희망으로 세계가 인천을 택했고, 우리는 지금 밝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올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세상은 GCF가 지구 기후변화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지구에 초록빛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 중심에 헬라 체크로흐(Hela Cheikrouhou) GCF 사무국 사무총장이 있다.

"GCF는 각국의 도시가 개발을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투자하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과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올해는 GCF 사무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가를 확인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시작이 미래에 초록빛 지구를 지키는 길로 이어지길, 마음으로 응원한다.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 그리고 인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 이제, 인천의 경쟁상대는 세계의 도시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 새해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품고 힘차게 달립니다. 먼저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시민과 함께'하는 대회로 치르겠습니다. 시민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함께 잘 사는 원도심'을 만들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역동적으로 움직여 온 '대한민국의 심장'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심장으로 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300만 국제도시의 당당한 시민이 됩니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300만

경제수도로 화려하게 비상

올해 인천은 인구 300만명을 넘어서며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인다. 현재 인천시민은 293만명으로 인구 300만명 시대를 바로 앞두고 있다. 우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출범을 발판 삼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300만 국제도시 인천'의 시대를 연다. 지난해 6월 영국의 저명한 시사경제주간지인 'EIU'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2025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할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는 꿈은, 지난해 상반기 그린필드형 외국인 투자유치 1위, 특·광역시 가운데 고용률 1위라는 성과로 현실이 됐다.
올해도 송도국제도시는 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개소에 힘입어 금융기관 및 기후변화 관련 글로벌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MICE, 유통과 패션산업, 글로벌 교육기관 등을 유치해 서비스산업의 허브기지로 도약한다. 영종지구는 복합리조트카지노 산업을 선정하여 사전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P&W 항공엔진정비센터, 보잉(Boeing) 항공운항훈련센터, BMW 드라이빙 센터 유치를 기반으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도 하나금융타운,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 사업 등의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모두 함께 행복한

원도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쓴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도심에 LG전자, 청운대학교 등 기업투자와 앵커시설을 유치하여 동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인천형 마을 만들기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히,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구도심 개발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구별의 초록빛 희망

GCF

지구를 초록빛으로 살릴 희망으로 세계가 인천을 택했고, 우리는 그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12월 4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고 출범했다. 아시아에 UN 산하 기구가 입주하는 것은 GCF 사무국이 최초다. 이로써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정 · 금융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됐다.

2014 AG

이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인천시민의 역량을 세상에 보여줄 때다.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앞세운 경제적인 대회로 치러 국제대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온 시민과 힘을 모아 일부 국가가 아닌 40억 아시아인들이 공감하는 대회를 열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그동안 'Vision 2014'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약소국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시민과 함께 하는

3Care

인천에서 태어나 평생 행복하게

시민과 함께 행복이 가득한 도시를 만든다.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경쟁력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해 학력 향상을 이끌고, 출산 · 보육 정책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보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는 인천시 3Care(Child-Care, Edu-Care, Job-Care) 정책의 비전이기도 하다.

문화로 즐겁고, 복지로 행복한 2014 인천

교육 · 일자리로 행복한 도시

외국대학 3개교 추가 개교합니다

조지메이슨대(3월 개교, 경영학, 경제학 학부 과정),
벨기에 겐트대(9월 개교, 바이오, 환경 등),
미국 유타대(9월 예정, 사회복지, 심리학, 신문방송학 등)

직업훈련 직종 늘어나요

청년층을 비롯한 구직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금년부터 제조, 물류, 항만, IT, 서비스 등의 분야로 확대하며, 훈련비는 무료이고 기숙사를 제공한다.

빗물부담금 제도 시행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 유출량에 대한 처리 비용을 해당 개발자가 부담한다.

청년근로자 ONE(취업)+ONE(진학) 프로젝트

인천지역 기업근로자 가운데 대학에 재학 중인 만 29세 미만 청년들이 대상이며, 기간은 2년이다.

작은 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작은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순회 사서를 지원한다. 179개 작은도서관 중 열악한 130개 소가 대상이고, 5개관 당 1명의 사서가 순환 근무한다.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주민자치센터를 독서와 음악감상,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북카페로 조성한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15곳에 북카페를 열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한다.

문화의 향기 가득한, 즐거운 도시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인천은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균형 발전으로 구도심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을 실현하며, GCF 사무국 출범으로 국제도시의 격을 갖추며 발전한다. 새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달라지는 새해 시정을 소개한다. **그림. 김홍기(기호일보 화백)**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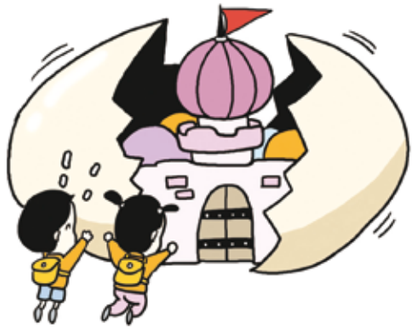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입소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포털에 등록된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연금 확대 지원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금년 연금 혜택 대상은 만 18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중증 장애인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품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보다 16개 늘어난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서비를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사람들로, 개별 상담을 월 4회 이상 6개월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하세요

소외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해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의 기회를 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분야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든든한 시민생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인생삼모작 지원센터 운영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체계적인 인생설계를 지원하는 전담 기구. 인생설계, 사회공헌, 일자리 발굴, 취업자료 등을 제공한다.

인천여성가족 포럼 운영

지역여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기구. 여성과 가족이 모두 행복한 인천형 여성가족 정책을 실현한다.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

야영, 캠프, 수련회 등의 청소년 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한다.

노인자살예방사업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자살 고위험자를 조기발견하고 그 치료를 돕는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개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프로그램을 연수구 외 관할구로 넓혀 진행한다. 아동·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도 확대한다.

생활이 편리한 스마트한 도시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및 KTX 개통

청라국제도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개통하고 KTX를 운행한다. 개통은 올해 2월 예정이다.

아파트 층간 소음 기준 강화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에 강화된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한다. 아파트 시공 시 벽식 · 무량판 구조 210mm 이상, 기둥식 구조 150mm, 바닥충격 기준은 경량 충격음 58dB 이하, 중량 충격음 50dB 이하다.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 무의 여행

자기부상열차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해 전국 최초로 운행한다. 운임료는 무료.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환승하여 용유역에서 하차한다.

잠자던 행정정보가 손안에 보물지도로

행정기관에서 제작한 다양한 지도를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한다. 부동산 실거래가의 경우 당일 확인이 가능해졌다.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편리하게

지적, 건축물, 가격 등 15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한다.

동물등록제 신고포상금제 시행

올해부터 미등록 동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는 주택 및 주택 외의 장소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 대상은 월령 3개월 이상이다. 등록이 안 된 동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없다 올핸 ‘말 달리자!’

광활한 초원을 힘차게 내달리는 말. 말은 건강과 에너지의 상징이다. 말은 오랜 세월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부대끼며 살아왔다. 그러기에 사람은 말에게서 동물 이상의 사랑과 신뢰를 느낀다. 승마는 말과 사람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함께하는 운동이다. 집중력과 근력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아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4년 갑오년을 맞아 승마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조병석 자유사진가

인간과 말의 정서적 공감, 교류 필요한 스포츠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맞은편에 자리 잡은 인천승마장은 한겨울에도 승마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인천승마장은 말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넓은 운동장, 초보자를 위한 원형마장, 실내마장이 있고, 산으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외승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승마는 동물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제일 중요한 스포츠다. 우선 말에 올라타기 전에 갈기를 쓸어 주거나 콧잔등을 만져 주면서 친근감을 표시한다. 승마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말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 리듬감 있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말을 타고 내리는 방법과 기본자세부터 배운다. 평보, 속보, 구보 등 단계별로 훈련한 후 말 위에서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과 리듬감을 체험한다. 그런 후에 속도를 줄이고 더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말과 친숙해진다.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말을 타는 것도 익숙해져 편안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다. 말에게 보내는 신호인 ‘부조’를 배우면 말과의 신뢰가 더 높아진다. 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하고 다룰 수 있게 되면 야외로 나가 시원스레 말과 함께 달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장애물 경기도 가능하다.

승마는 현대인들에게 색다른 레저문화로 자리 잡았다. 인천승마장의 경우 미혼여성, 주부,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다. 승마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없이 좋은 스포츠다. 특히 독일의 경우 승마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치료 수단으로 활용,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승마는 신체의 평형성과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신체발달을 돕는 데 탁월하다. 대담함과 건전한 사고력을 길러 주는 것은 물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어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 좋다.

수영보다 유산소 운동효과 20배, 근육강화에 도움

승마는 대체로 6개월 정도 타면 속보, 구보, 장애물 넘기가 가능하고 1년 정도되면 야외에서 말과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올 8월부터 승마를 배우기 시작한 최희유(12, 계남초) 양은 동물을 좋아해 승마를 시작한 후 매일매일 나와 교육을 받고 있다. 최 양은 "말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서로 통하는 것을 느낀다"며 "말을 타고 달릴 때가 가장 기분 좋다"고 말한다. 교관들도 승마는 40분 정도 타면 힘도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량도 크다고 말한다. 수영보다 유산소 운동효과가 20배나 높고 전신운동으로 허리디스크, 등 근육 강화에 좋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승마장은 다양한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승마체험, 초보자를 위한 승마아카데미, 초중고생 방과후 활동, 전국대비 및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승마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승마장은 남동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장애인 재활승마 교실을 열고 있다. 뇌병변, 자폐, 지적장애아들에 대한 재활 치료다. 장애아들의 경우 승마를 배우면 집중력을 높이고, 균형감각을 기르는데 좋다.

재활승마 교육엔 모두 3명의 조교가 투입된다. 말을 잡는 사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말 양쪽에 두 명의 보조 조교가 붙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 재활승마는 주1회 30분씩 이뤄진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을 앓았던 이은정(8) 양은 작년 3월부터 매주 1회 30분씩 승마를 하면서 잡고 설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청은 주민자치센터나 교육청에 해야 한다. 주로 기초수급권자 이거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심신단련은 물론 동물에 대한 사랑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승마. 승마는 우리 선조들의 기상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로 올해는 더욱더 대중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문의 : 466-2754

인천 내 승마를 배울 수 있는 곳

남동승마클럽(일반승마, 재활승마) ☎ 819-9500
나인승마클럽(일반승마) ☎ 556-8005
인천승마공원(일반승마, 재활승마) ☎ 469-0006
계양승마클럽(일반승마) ☎ 519-4911
마니산 승마랜드(일반승마) ☎ 933-0027

인천승마힐링센터

승마로 장애청소년 장애극복 돕는다

말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정서장애를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되찾는 것, 그것이 '치유승마' 혹은 '승마힐링'이다. KRA한국마사회는 말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정서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인천승마힐링센터'를 전국 최초로 인천에 열고 장애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정서장애 치료에 활용하는 치유승마는 장애인 치료로 알려진 재활승마의 일종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말과의 교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치료방법이다.

인천승마힐링센터는 상담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상담치료, 예술치료, 두뇌훈련, 심리검사 등으로 상담자의 특성과 문제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6월 문을 연 인천승마힐링센터는 치료효과가 입증되면서, 지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총 1만5천270명의 학생들이 다녀갔고 승마치료 7천170건, 상담 7천898건, 심리검사 202건 등을 진행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의 2차 상담센터로 지정돼 초·중·고등학교 고위험군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위탁받아 힐링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40개 학교 재학생 중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승마강습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 1566-7006

名馬 길러 낸 인천 섬들

강옥엽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민속학적으로는 12지지(地支) 중 7번째인 말(馬)의 해에 해당한다. 지금은 말을 경마장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동물로 생각하겠지만, 전근대에서는 주요한 교통수단이자 전쟁수단이었다. 때문에 국가 체제의 주요 기반인 군사력, 특히 전마(戰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려와 조선 연간에는 마조단(馬祖壇)을 두고 마사제(馬社祭) 등 제사도 지냈으며 따로 말을 관리하는 기구와 관리도 두었다.

말(馬)과 관련한 이야기라면 우리 인천도 무관하지 않다. '천마와 아기장수', '임금님을 울린 벌대총' 등 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설화도 그렇고, 마장(馬場: 강화, 옹진 등), 마분리(馬墳里: 지금의 부개동) 등 전근대에 말 목장을 운영했던 흔적이 반영된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은 해안과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말을 사육하기에 여건이 매우 좋았다. 조선시대에 말 목장은 대부분 섬이나 해안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이는 서울과 가까워 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또한 말을 사육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수초(水草)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섬으로는 제주도가 목장 수에서 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가장 컸지만, 그 다음이 인천으로 자연도·삼목도·용유도·무의도, 강화의 진강장·매도, 옹진의 장봉도·신도 그리고 교동의 송가도에서 말과 소를 사육하였다.

장봉도 마성터 현재 모습

강화전도(18세기 후반)

지도에 나타난 말목장

목장을 설치하여 말을 사육한 것은 교통, 군사, 외교, 산업 등 다양한 용도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라의 중요한 것은 군사요, 군사의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태종실록'의 기록처럼 주로 군사상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삼국시대 이래로 국력을 기울여 말의 사육에 주력하였는데 고려에서는 태복시(太僕寺)를, 조선은 사복시(司僕寺)를 설치하고 양마(養馬)에 힘썼다.

그 가운데 강화도의 진강목장은 진강산과 길상산을 축장(築場)하여 1천500필의 국마를 사육하였는데 규모에 있어 제주도 다음가는 목장으로 양란 때에 우수한 전마(戰馬)를 보급하던 곳이었다. 특히, 효종 때 북벌계획의 일환으로 우량 마종을 방목하고 전마 확보에 힘을 기울였는데 효종이 아꼈던 벌대총(伐代驄)은 그런 북벌의 의지를 담은 명마로 유명했다. 강화의 매도목장 역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태조 이성계가 탔던 8준마(駿馬) 가운데 일곱 번째인 '사자황(獅子黃)'을 산출한 목장으로 유명하였다. 사자황은 태조가 고려 우왕 6년(1380)에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할 때 탔던 명마로 알려져 있다.

목장은 임진왜란 이후 폐지 또는 축소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임진왜란 중 남방 목장의 반 이상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 선조 27년(1594)에 40여 개소가 폐지되고 말을 보급한 목장은 제주도 목장을 비롯하여 강화의 진강·신도·장봉도·매음도 등 25개 소뿐이었다. 병자호란을 겪은 후 인조와 효종이 목장을 부활시키는 등 마정(馬政)에 힘썼지만, 전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속에 목장을 경작지로 활용하자는 여론과 목자(牧者)들의 가혹한 부담으로 인한 회피, 유망, 도살 등으로 조선후기로 오면서 목장은 전폐하고 말았다.

현재 인천은 바다를 통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가용할 수 있는 육지부를 확장해 새로운 미래 도시를 창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사업이겠지만, 바다와 함께 자리한 150여 개의 섬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해양도시 인천의 중요한 미래 자원이다. 여기에 말 목장으로 운영되었던 역사적 자취는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발소,
추억을 깎다

40대 이상 중장년들에게 이발소는 단순히 머리만 자르던 곳은 아니다. 동네 사랑방이었고, 문화의 중심지였다. 바깥일로 바쁜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만에 머리를 깎으며 부자의 정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던 시간이 스민 장소였다. 사람사는 냄새 솔솔 풍기며 동네 이정표 노릇을 했던 이발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미 사라지는 업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을 증명하듯 대부분의 이발소들이 낡고, 초라해 시간이 멈춘 듯하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숭의동 신광이발소 60년간 이발소로 명맥이어

신광이발소는 빨간색 기와를 얹은 단층 구조 건물이 제법 이발소다운 운치를 보여준다. 건물 외벽에는 빨간색 파란색의 이발소 표시등이 달려있다. 이 집은 이발소로 만 60년간 명맥을 이어왔다. 이원호 사장(63)은 앞서 이발소를 운영한 사람에게 '바리깡'을 건네받아 21년째 신광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북도 장수가 고향인 이 사장은 20세 무렵부터 기술을 배워 40여 년 넘게 이발로 생업을 잇고 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 이발 기술은 그에게 시골에서 빨리 돈 벌고 밥먹고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눈썰미가 좋고 손놀림이 빨라 오라는 가게도 많았다.

그가 인천에 정착한 것은 1993년. 처음에는 다른 가게에서 월급생활을 하다 지금의 신광이발소를 인수했다. 가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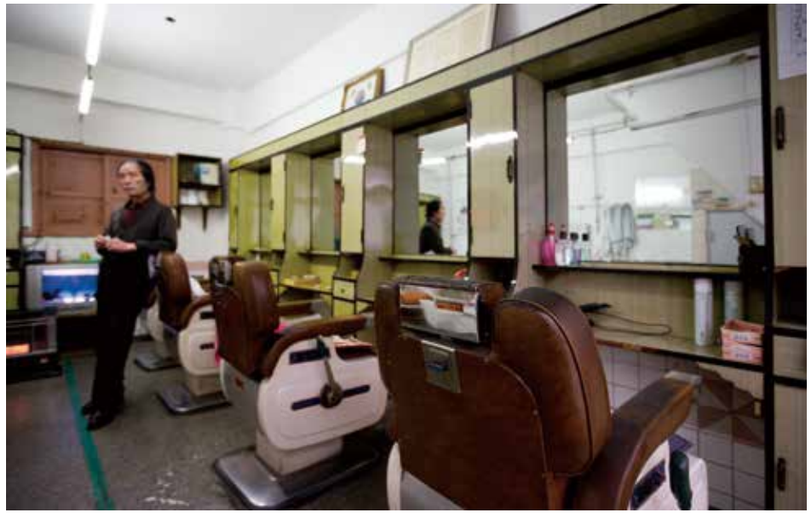
"이발소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에요. 시민생활과 관련이 깊어요. 김장철이나 새 학기때 돈 많이 들어갈때는 이발소가 안되요. 돈이 딴 데 들어가면 머리깎는 걸 아끼잖아요."

신광이발소는 아직도 연탄난로를 핀다. 이발소 내부는 7,80년대에 머문 듯 정겹고 예스럽다. 의자나 가게구조도 옛 모습 그대로다. 손님도 대부분 40대 이상이다.

이 사장은 이발소가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건설경기가 좋을때까지는 잘 됐다고 회고한다. 평일에도 줄서 서 기다리는 것이 예사였고, 명절에는 새벽 2,3시까지 일할 정도였다. IMF 전 얘기다. 특히 이곳은 용현시장이 있어 상인 단골이 많았다. 요즘은 하루 10명도 자르기 힘들 때도 많다.

남구에도 예전 360여 개의 이발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200여 개로 줄었고 이중 영업하는 곳은 60~70%선이다. 이 사장은 이발소가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는 '자기 손에서 손님이 오고간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하고 친절하게 손님의 머리를 매만진다.

문의 : 881-0204



송림동 세기이발관 드라이 잘하는 이발사로 유명

송림동 세기이발관 김운식 사장(72)은 동구 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사다. 지금은 사람들이 떠나간 구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발소를 지키고 있지만 한때는 드라이 잘하는 이발사로 꽤나 이름이 있었다. 그는 송림동에 가게를 열기 전 경동의 '성심이발소'라는 유명 이발소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주특기는 이발과 드라이였다.

그가 송림동에 세기이발관을 개업한 때는 1977년. 자기 가게를 연 재미도 있고, 일하는 것이 좋아 아침 일찍 나와 저녁 늦게까지 일했다. 이발관이 한창 잘될 때는 세발, 면도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만 5명을 두었을 정도였다. 그렇게 잘되던 가게도 IMF가 터지면서 손님이 줄었고, 수도국산에 살던 주민 3천 가구가 재개발과 함께 떠나면서 손님은 더 줄었다.

세기이발관은 김 사장이 개업했을 당시 모습 그대로다. 이발소 이름은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았고, 오랜 형광등, 머리감을 때 쓰던 조루, 10여 년이 넘은 드라이기가 이발소의 오랜 흔적을 말해줄 뿐이다.

김 사장은 아직도 이발을 할 때 하얀 가운을 입는다. 지금 이발사들이 가운을 입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내가 구식이라서 그렇지 뭐." 김 사장이 쓥쓸한 미소를 머금은 채 말한다.

가게는 손님들과 함께 늙어간다. 세기이발소를 찾는 손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다.

그래도 이발소 하면서 아들딸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하여 출가시킨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다. 직업으로 이발사를 선택한 것도 잘한 일로 생각한다. 이 나이에 자기 일 하면서 돈도 버는일이 어디있겠냐며 이발사를 최고의 선택, 최고의 직업으로 꼽았다. 문의 : 765-7971

구월동 우석이발관 머리결 만으로 손님을 알아봐

머리빗과 잘드는 가위로 정교하게 머리칼을 잘라낸다. 45년 기술을 자랑하는 이발 장인의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진다. 우석이발관 박명남 사장(62)은 17세부터 이발기술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도 이발사였다. 아버지의 권유로 머리도 감기고 면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이발사의 길로 들어섰다. 첫 개업은 78년 주안역부근 성지이용원이다. 박 사장에게도 이발사의 호시절은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다. 그때는 하루 종일 손님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고, 여학생들도 상고머리, 단발머리를 이발소에서 잘랐다. 미용실이 기계로 컷을 하는데 반해 이발소는 빗과 가위를 이용해 머리칼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잘라낸다. 그러다 보니 미용보다 시간도 더 많이 들고 힘도 곱절은 든다. 이발사들의 주요 기술중 하나인 역 가위질은 다년간 훈련을 필요로 하기에 미용사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고도의 기술이다.

그의 가게엔 오래된 이발기구들이 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박사장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다. 30년된 수동바리깡, 40년이 넘는 양도, 일도형 면도칼이 켜켜이 쌓은 세월을 말해준다. 그 이발기구들로 3,40년 된 단골손님들의 머리를 깎고 면도를 했다.

30년 넘게 이발을 하다보니 그는 손님의 머리만 봐도 어떤 가위를 써야 할지 안다. 가게엔 10개가 넘는 이발가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며 꽂혀있다. 우석이발관은 다른 이발관에 비해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다. 내부 인테리어도 깨끗하고 세련됐다. 박사장은 이발소들의 살길은 시설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 손님이 오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길만이 이발업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 믿고 있다. 문의 : 468-5250

오래된 이발소 살리기 프로젝트

'아들아! 아버지하고 머리깎으러 가자'

우리시가 갈수록 낙후되어 사람들이 가고싶지 않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이발소 활성화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다. 6,7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이발소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머리를 깎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사랑방이었다. 그러던 이발소가 세상의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면서 점점 없어지는 업종, 사라지는 직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이발소를 국제도시에 걸맞게 이미지를 제고시켜 신성장 부가가치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 업소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고객 위주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내부가 보이고 깨끗한 가고싶은 이용업소로 만들고 있다.

우리시는 이발소의 오래되고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세련된 표지판을 개발했다. 새로 디자인한 표지판은 지정업소에 설치해 새로운 이미지와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이발사들에게 전문적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재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발소 프로젝트를 통해 편안하고 깨끗한 이발소 이미지를 만들어 직업의 자긍심은 물론 시민들이 다시 찾는 이발소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문의 : 440-2794

월미은하레일 '레일바이크'로 재탄생

▶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교통공사는 △전문 엔지니어링사 기술조사 내용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 의견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 △기존 시설 활용도와 적용성 △관광 상품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레일바이크로 활용방안을 정했다.
교통공사는 '기술조사 및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을 실시해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을 레일바이크, 다른 방식의 모노레일, 궤도택시(PRT), 노면 전차, 꼬마기차 등 다섯 가지로 축약한 바 있다. 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월미은하레일을 즉시 철거하거나 새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66.5%, 보수해 현재 용도대로 쓰자는 의견이 23.8%로 나왔다. 선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가 53.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노레일(14.9%), 기타(9.9%) 등이었다.
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했을 때도 레일바이크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응모됐다.
교통 · 경영 · 철도 · 구조 · 관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에서도 레일바이크가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됐다.

교통공사는 인천발전연구원이 2017년 기준 추정 수요를 조사한 결과 레일바이크가 80만명으로 모노레일 68만명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레일바이크의 경제 효과도 110억원으로 모노레일보다 20억원 많았다고 덧붙였다.
월미은하레일 후속으로 추진되는 레일바이크는 강원도 정선 등 전국 곳곳에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형태다. 다만 이용자가 자동 · 수동을 조정할 수 있는 전동형 차량을 투입하고 7~18m 높이 교량을 따라 운행하는 점이 다르다. 교통공사는 공중에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새 시설물에 '스카이바이크'라는 가칭을 붙였다.
교통공사는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 미흡이 월미은하레일 철회의 결정적인 사유인 점을 고려, 새 시설물에는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20-5000

로봇홍보단, 2014 인천장애인AG 첫 해외 홍보

▶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로봇홍보단 로보티카가 첫 해외 홍보활동을 펼치며 대회 알림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미국 콜로라도 댄버에서 열린 2013 국제로봇올림피아드세계대회 창작로봇 부문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로봇홍보단 안성훈(남동고 1), 구본무(인제고 1), 이인영(계산중 2)군 등 단원 세 명은 대회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마련,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대회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대회에서 발표상을 수상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미국 뉴욕, 보스턴, 워싱턴DC 등 주요 도시의 유명대학과 관광지 등을 돌며 대회를 소개하는 현수막과 배낭깃발을 이용해 거리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문의 :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458-5372

송도서 3년간 모터 페스티벌 개최

▶ 송도에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차례 이상 대규모 모터 페스티벌이 열린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현대자동차와 함께 '더 브릴리언트 모터 페스티벌'과 한류문화축제 개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강원도 인제와 전남 영암에서 개최해 온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을 오는 5월 중순경 송도 국제업무단지 인근에서 여는 등 3년간 매년 1차례 이상 모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심 레이스로 펼쳐지는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은 2003년 출범한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로 지난 10년간 5천여명의 레이서를 배출해 '모터 스포츠 사관학교' 역할을 해왔다. 2014년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은 국내 최고 상금인 4억2천만원을 놓고 5~11월 송도, 영암, 인제 등에서 총 6회의 경기로 진행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92

인천대, 송도에 미추홀캠퍼스 추가 개소

▶ 인천대는 지난해 12월 17일 메인 캠퍼스인 송도국제도시 캠퍼스 외에 송도 미추홀타워에 미추홀캠퍼스를 추가로 개소했다.
미추홀캠퍼스는 인천지하철 송도 테크노파크역 인근 미추홀타워 A동에 들어섰고 사범대학,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공자학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로써 인천대는 송도캠퍼스와 옛 캠퍼스인 남구 도화동 제물포캠퍼스를 포함해 캠퍼스가 세 개로 늘어났다.
인천대는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대학 소속감을 높이고 시민에게 정확하고 통일된 인천대 캠퍼스를 알리기 위해 미추홀캠퍼스를 개설하게 됐다.

문의 : 인천대학교 ☎835-8114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명단 168건 공개

▶ 우리시는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 법인과 개인 명단 168건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액은 총 235억원으로 법인은 39곳에 133억원, 개인은 129명에 102억원이다.
법인 중에는 취득세 34억2천300만원을 내지 않은 부동산업체 송도베스트가 최고액 체납자로 나타났다. 이어 17억4천900만원을 체납한 범진유통, 15억7천100만원을 체납한 평화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 중에는 남동구의 부동산업자 송모씨가 취득세 12억8천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액 체납자가 됐다.
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유체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세정과 ☎440-2573

학익동에 '점자도서관' 건립 추진

▶ 남구 학익동에 '인천점자도서관'이 들어설 전망이다. 올해 착공해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 도서관은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익동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주차장 부지 877㎡에 3층 규모로 건립한다. 도서관에는 제판실, 녹음도서관실, 서고, 열람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현재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송암 박두성 선생(1888~1963)의 기념관을 이 도서관 3층으로 확장 이전한다. 박두성 선생은 1926년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개발해 맹아교육의 기초를 닦아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칭송된다.
한편 우리시에는 1만3천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 292만여 명 가운데 0.46%에 달하는 수치다.

문의 : 시 장애인복지과 ☎440-2947

'인천펜타포트'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

▶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 문화관광유망축제'로 3년(2012~2014년) 연속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심사, 축제 개최 실적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국에서 총 40개의 축제를 선정하는데, 우리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유망축제로 선정되면 국비 8천900만원과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해외홍보와 축제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신진 아티스트를 육성하기 위한 펜타 슈퍼 루키, 음악비지니스 마켓인 아시아뮤직스팟, 시민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아츠 등 다양한 음악콘텐츠로 구성된다.
시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의 콘텐츠와 음악장르를 더 확충하는 한편, 아시아뮤직스팟을 더욱 확대시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문화예술과 ☎440-4022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통

▶ 우리시가 행정업무나 인 · 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공금횡령과 인 · 허가 분야의 비리 등 동일한 유형의 공직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0억9천여 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예방 행정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비리징후 발생 시 감사자, 부서관리자, 담당자의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문제점에 대한 경보가 발령되는 시스템이다.
부평구, 서구, 옹진군과 함께 지난해 3월 안전행정부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시는 지난해 이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감사관실 ☎440-3084

포스코 송도 자사고 2015년 3월 개교

▶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한국 뉴욕주립대, 연세대학교 등 글로벌 명문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송도에 '송도 포스코 자율형 사립고(가칭)'가 오는 2015년 3월 개교한다.
송도 포스코자사고는 2만5천㎡ 용지에 교실동, 도서관, 체육관, 시청각실, 대운동장, 식당 등을 갖추고 24학급(정원 720명) 규모로 운영한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첫 신입생 240명(8학급)중 70%를 인천 소재 중학생에 배정(사회적배려대상자 20%)하고 30%는 인천 소재 포스코 임직원 자녀에게 할당할 예정이다. 수업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공립고의 2~3배 선에서 논의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33

주안산단에 화장품 연구 · 생산단지 조성 추진

▶ 우리시가 서구 · 남구 · 부평구 한국수출산업단지(주안산업단지)에 화장품 연구 ·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2016년에 완공되는 한국수출산업단지 융복합물류센터에 지역 화장품 업체 50여 개를 입주시키고 화장품 연구 ·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화장품 재료 · 용기업체 등을 한 곳에 모아 업체 간 공동연구와 협력을 유도하고 화장품 판매 · 유통 등을 촉진해 미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2020년까지 한국수출산업단지(117만7천㎡ · 512개 업체)를 현대화 · 활성화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2만1천500㎡ 규모의 융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2월 지역 내 화장품 업체 150여 개를 대상으로 융복합물류센터 입주 의향을 조사한 뒤 센터에 입주할 화장품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동인더스파크(구 남동공단)는 동종 업체들이 퍼져 있어 좋은 상품이 있어도 해외 바이어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모여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관 등을 운영하면 해외바이어들의 관심을 더 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4288

UN 기탁도서관 송도로 이전 개관

▶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UN 기탁도서관인 '송도국제기구 도서관'이 지난해 12월 19일 개관했다. 송도국제기구 도서관은 미추홀도서관내 일부로 있던 UN 기탁도서관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송도국제기구 도서관에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련 도서, 전문 잡지, 교양 서적 등 5천83건의 자료가 비치됐다. 대부분 UN에서 보낸 외국어로 된 도서이고, 한국어로 된 도서도 일부 있다.
UN은 UN이 소장한 자료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전 세계 약 400개 도서관을 기탁도서관으로 지정했다. UN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되면 UN에서 필요에 따라 소장 자료를 수시로 보내준다.
한편 국내에는 송도국제기구 도서관을 비롯해 10개 UN 기탁도서관이 있다.

문의 : 미추홀도서관 ☎851-6650

대한항공, 2014 인천장애인AG 후원

▶ 대한항공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공식 후원한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지창훈 총괄사장과 김성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항공권을 지원한다. 또 후원사로서 대회 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고 2주 후인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문의 : 인천장애인아시아조직위 ☎458-5383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370억원 투입

▶ 우리시는 올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370억원을 투입한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란, 사업성 위주의 일방적인 정비사업에서 탈피, 보전·정비·개량사업으로 주거 환경은 개선하면서 주민 공동체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지 8개 소에 451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올해 초 주민 공모로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뒤 하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광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준공, 저소득층 원주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시 주거환경정책관 ☎440-3453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협약체결

▶ 인천지역 건설자재 생산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18일 인천지역 건설자재 생산업계와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건설자재 사용 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건설자재 생산 제조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과 지역 건설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생산 건설자재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하게 된다.
인천지역의 건설자재 생산업체는 총 7천여 개로 제조업이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6만3천여 명에 이른다. 전국 제조업체 대비 2.1%, 종사자는 1.8%를 차지해 6대 광역시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문의 : 시 건설심사과 ☎440-3812

2월까지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

▶ 우리시는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난방 수요 증가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 말까지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시와 군 · 구는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는 평균 18도 이하로 유지하며, 근무시간 중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 홍보전광판 및 경관조명 소등을 실시한다.
또 민간부문의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최초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은 3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293

영종도 인천공항 지역에 공항소방서 생긴다

▶ 관할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로만 운영하던 영종도 인천공항 지역에 소방서가 생긴다.
우리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소방시설 건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오는 2015년 4월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북측 지역에 소방서를 신축하고 인천시에서 전문 소방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외주 형식의 공항소방대가 있으나 에어사이드 내 항공기 사고 전담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공항 개발부지나 영종도 등 주변 지역의 안전사고 대응에는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문의 : 소방안전본부 ☎870-3022

인천연안터미널, '지진 안전성 표시' 명판 받아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공공건축물로는 최초로 소방방재청의 '지진 안전성 표시' 명판을 받았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소방방재청이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공사는 지난해 말 터미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 관련법상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받고 지진 안정성 표시 명판을 받았다.
1995년 준공된 연안여객터미널은 인천~백령도 · 연평도 등 6개 항로의 여객선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문의 : 인천항만공사 ☎890-8000

시의원 직무능력 향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 활동 지원강화를 위해 시행한 '정책현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지난해 12월 3일 의원총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정책현안 연구용역은 도시재생, 환경, 문화, 산업, 교육, 복지, 재정, 국제협력 등 여덟 가지 분야로 전문강사와 의원들간의 토론식 창의 교육으로 열렸다. 그리고 도시재생 우수사례 지역인 서울 마포구 연남동 휴먼타운을 현지 답사하여 벤치마킹 하는 등 인천시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제 연구와 제안이 주요 내용이었다.
연구용역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 주민 · 전문가의 협업 체제에 의한 살고 싶은 마을 공동체 추진과 녹색 산업의 다각적 글로벌 전략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됐다.

건교위, 발로 뛰는 '행감'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201공구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지난 2012년 2월 발생한 함몰사고 관련 원인 및 복구현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고, 특히 전원기 의원은 201 정거장 주변 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 아파트 단지 등의 철도 통행에 따른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음벽 설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단사거리 및 완정사거리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1공구 현장의 지난번 사고발생지역의 복구상황 등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사현장인 만큼 유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공정관리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연인프로젝트 지역사회 기여방안 논의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6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송도국제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트 조성 계획과 연인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의 기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성만 의장은 김문겸 연세대 부총장 등 간부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연세대 국제캠퍼스의 RC(Residential College, 교내 기숙형 대학)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송도국제캠퍼스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국제도시 환경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산학협력, 해외대학과의 협력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 재정위기 극복에 맞춘 예산안 심사

이재병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원칙에 입각해 심사했다. 경기회복 부진과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올해도 인천시의 재정여건은 어두울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 인하시기 및 보전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임하면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원들간 자체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의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자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에 대한 대 원칙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교육, 보건, 위생, 장애분야 등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되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다.

2014 인천AG에 사회적기업참여 당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사회책임조달 연구회는 사회책임조달제를 도입해 나눔과 배려, 감동이 함께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회책임조달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회책임조달 연구회 회원인 홍성욱 의원, 조영홍 의원과 AG조직위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병 의원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사회적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검토하여 취약계층의 고용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조직위에 적극적으로 당부했다.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연수구청에서 정수영 위원장과 제갈원영 위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구를 마지막으로,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순회 방문 간담회는 특위가 시의회 차원에서 아파트에 대한 지원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8개구를 돌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것으로 진행했다. 총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간담회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들으면서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와 입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
한편, 특위는 올 3월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추진하여 시 집행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징검다리 역할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1일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사업 등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시의원들은 센터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하고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흙처럼
불처럼
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벽재(碧齋) 고상순(67)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 눈이 쏟아졌다. 하늘에도 땅에도 나무에도…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푹 뒤덮었다. 그 길 끝에 다다른 벽재도예연구소 안은 따사롭기 그지없다. 그 안에서 만난 선생도 온유한 성품의 맑고 따스한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도예가란 모름지기 오랜 시간 흙을 달래고 보듬고, 무수한 망치질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그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겸손이 뼛속까지 스며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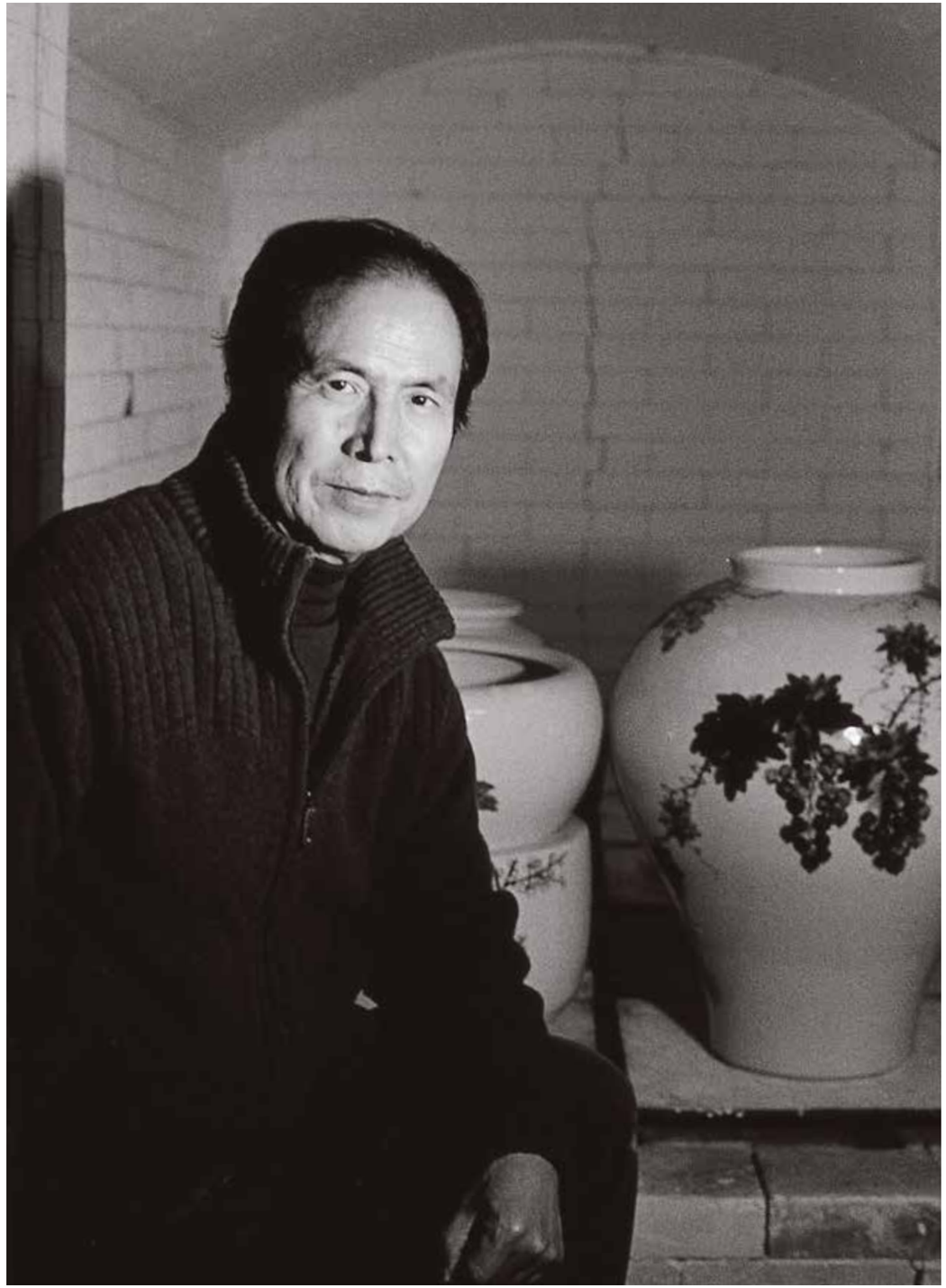
길은 이미 정해져있던 것일까. 주안 수봉산 자락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신기촌 중앙도자기 공장에서 도자기 파편과 점토를 가지고 놀았다. 그리는 것을 좋아하여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다. 그러다 40여 년 전 한국 도예계의 명인 고 변산(辺山) 위군섭 선생을 운명처럼 만나 가르침을 받았다. 1986년에는 고려시대 녹청자도요지를 품은 역사적인 장소인 서구에 벽재도예연구소를 세우기에 이른다.

둔탁한 녹갈색 빛에 거칠고 투박한 꾸밈없는 아름다움. 벽재는 선조들의 질박한 삶과 정서가 깃든 녹청자에, 이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담아 다음 세대에 전하고픈 생각이 가득하다.

“경서동 녹청자는 한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이자 예술로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큽니다. 이를 재현하고 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후세에 전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물레를 돌리고, 무늬를 새겨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입혀 재벌구이를 하고, 1천300도 가마 안에서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시간이 멈춘 듯, 흙처럼 불처럼 살아 온 40여 년. 앞으로도 그는 묵묵히 제 길을 갈 것이다. 그의 가마에서 피어오른 불꽃도 세월이 흐를수록 ‘활활’ 더 뜨겁게 뜨겁게 타오르리라.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2014 신년음악회'

2014년 갑오년을 맞아 1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신년음악회'가 열린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의 새로운 모습을 재조명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화합을 위한 신년음악회는 인천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의 풍성한 연주로 채워진다.

금난새 지휘자의 명쾌한 해설을 곁들인 신년음악회는 로시니의 '세미라미데'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를 러시아 피아니스트 오브차로프와 인천시향의 연주로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오브차로프는 7세에 국립 레닌그라드 콘저바토리의 영재음악원에 입학, 신동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색조를 순화시키는 완성된 예술가'란 평을 받고 있다.

일시 : 1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 1588-2341

이 무지치(I MUSICI) 신년음악회

실내악의 전설, 이 무지치 실내합주단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내한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야심차게 마련한 '2014 클래식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이자, 보다 많은 시민들과 개관 20주년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무대다.

'이 무지치'는 이탈리아어로 '음악가들'을 의미하는 총 12명으로 구성된 현악합주단으로, 바로크 · 낭만파 음악은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들은 20세기 비발디 음악의 르네상스를 시작한 장본인으로 1955년 비발디의 사계를 세계 최초로 레코딩하여 2천500만장의 경이적인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번 연주를 통해 이 무지치는 코렐리와 비발디, 제미니아니의 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일시 : 1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1588-2341

그윽한 커피향과 함께 즐기는 '커피콘서트'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ée Concert)다. 전석 1만5천원이라는 놀라운 가격과 갓 뽑은 신선한 커피는 관객이 뽑은 커피콘서트만의 매력이다.

2014 커피콘서트 상반기 라인업

커피콘서트 I : 1월 15일
월드뮤직그룹 공명 – 고원(高原) :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한국 전통 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재구성을 통하여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룹 공명(共鳴)이 한국의 고원을 닮은 음악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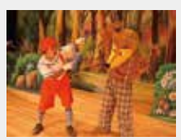
커피콘서트 II : 2월 26일
팝페라 카스트라토! 정세훈
가성에 의한 발성으로 그 음역에 한계를 뛰어넘는 목소리를 가진 팝페라 카스트라토 정세훈. 신이 내려준 선물과 같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신비한 카스트라토의 세계로 빠져보자.

커피콘서트 III : 3월 19일
프랑스 인상주의와 바이올린 비루투오소, 김재영
젊은 현악사중주, 노부스 콰르텟(NOVUS Quartet)의 리더이자 우리나라 차세대 솔리스트로 대표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이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연주한다.

커피콘서트 IV : 4월 16일
유지나의 시네마 토크
영화평론가 유지나의 시네마토크는 영화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술가의 모습을 흔들어 깨우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다.

커피콘서트 V : 5월 14일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1962년에 창단하여 2012년 50주년을 맞이한 한국 최초 직업 발레단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인 국립발레단이 해설과 함께 찾아온다.

커피콘서트 VI : 6월 18일
바흐솔리스텐서울이 들려주는 고(古)음악 이야기
클래식 음악의 영원한 숙제이자 버팀목인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는 바흐솔리스텐서울이 아름다운 바로크시대의 명곡들을 노래한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CALENDAR PERFORMANCE			1	2	3	4
5	6	7 신나고 재미있는 구강교육뮤지컬 '딩동이 치카루카'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30분 1만5천원, 단체6천원 ☎032-580-1155	8	9	10 어린이뮤지컬 '미술관은 살아있다'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천원 ☎032-505-5995	11
12	13	14 신나고 재미있는 캐릭터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30분 1만5천원, 단체6천원 ☎032-580-1155	15 커피콘서트 I 월드뮤직그룹 공명 "고원 :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5천원 ☎인천&아츠 1588-2341	16	17 2014 신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18 제14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7시 무료초대 ☎YMCA일민로제어린이요들단 010-3287-9739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전석 2만5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팝카펠라 원달러의 아주 뻔(FUN)한 콘서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2014년 1월 18일(토) 오후 4시 6천원, 학생 무료 ☎032-760-3457
19 이 무지치 신년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전석 2만5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20	21 재미있는 성교육예방뮤지컬 '내 몸은 소중해요'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30분 1만5천원, 단체6천원 ☎032-580-1155	22	23 국악기체험공연 〈달강달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전석 1만원 ☎한국예술경영협회 032-819-1002 국악 '신년음악회' 해누리극장 오후 8시 R석 6만원, S석 5만원, 시야장애석 3만원 ☎032-500-2000	24 밴드데이 스페셜 스테이지 〈신년special SHOW〉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8시 전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25 발레뮤지컬 〈잠자는숲속의오로라 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4시, 7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예인프로덕션 1566-9921 밴드데이 스페셜 스테이지 〈신년special SHOW〉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전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어린이연극 〈움직이는 그림동화 강아지똥〉 달누리극장 오전 11시, 오후 2시 1만2천원 ☎032-500-2000
26 발레뮤지컬 〈잠자는숲속의오로라 공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예인프로덕션 1566-9921 어린이연극 〈움직이는 그림동화 강아지똥〉 달누리극장 오후 2시 1만2천원 ☎032-500-2000 	27	28 국악현악앙상블 The 류流 '아리랑 술래'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천원 ☎032-505-5995 신나는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30분 1만5천원, 단체6천원 ☎032-580-1155	29	30 2013 연수문화원 문화예술동아리 음악회 연수구청 지하 대강당 오후 6시 ☎032-821-6229	31	

Exhibition 이달의 展

~1월 26일 **나의 살던 동네 – 두 번째 이야기** /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1월 10일~1월 16일 **제73회 인천미술협회 회원작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월 10일~1월 30일 **창의 · 인성 전시 체험관 모래놀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월 10일~2월 23일 **2013 제4기 입주예술가 결과보고展전** / 인천아트플랫폼
1월 13일~1월 24일 **제 8회 정기전 '공간을 그리다전'** / 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공연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남동문화예술회관은 공연예술아카데미를 열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정규강좌(1월 6일~3월 27일)

프로그램	운영일시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수강료
	요일	시간			
재미있는 연극놀이	월	오후 4시~5시 30분	15명+	미취학아동 (5-7세)	12만원
창의적인 연극놀이	목	오후 4시~5시 30분	15명+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11만원
시민연극	화, 목	오후 7시~9시	15명+	15세-성인	23만원
한국무용	목	오전 10시~12시	15명+	15세-성인	11만원
올드팝송	화	오전 10시~11시 30분	15명+	15세-성인	12만원
놀이를 통해 배우는 우리춤	수	오후 4시 30분~ 6시	15명+	초등학교 고학년 (3-6학년)	11만원
클래식기타(오전)	화	오전 10시~12시	15명+	15세-성인	12만원
클래식기타(저녁)	수	오후 8시~10시	15명+		11만원

공연예술아카데미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일시		모집 인원	모집 대상	수강료
	요일	시간(시수)			
어린이 교육연극 1월 6일~10일	월-금	오후 1시~3시 (5회, 10시간)	15명+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5만원
청소년 교육연극 1월 6일~17일	월-금	오후 5시~8시 (10회, 30시간)	15명+	청소년 (13세-19세)	15만원
교육연극워크샵 1월 6일~11일	월-토	오후 5시~8시 (6회, 18시간)	15명+	교사/ 강사/성인	9만원

문의 : 453-5710

동절기 에너지 절약 온맵시 캠페인

최근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져 겨울철 난방 수요 급증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동절기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복입기 등 온맵시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

기간 : 2월 28일까지

겨울철은 면역력 위기의 계절, 믿으세요! 내복의 뜨거운 힘!

체온이 1℃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지며 체온이 올라간다.

- 실내온도를 23℃에서 20℃로 3℃ 낮추면 약 20%의 에너지를 절약
- 모든 국민이 내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는 34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어린 소나무 약 12억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

입주예술가 결과 보고전

인천아트플랫폼은 1월을 맞아 기획전시의 일환으로 '제4기 입주예술가 결과보고전'을 연다. 회화,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2013 제4기 입주예술가 결과 보고전

전시일시 : 1월 10일(금)~2월 23일(일)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르 : 회화, 사진, 조각, 설치, 영상, 퍼포먼스, 문학 등
관람료 : 무료
문의 : 760-1003

다양한 예술가들의 디자인

진행일시 : 1월 18일(토)~2월 15일(토), 매주 토요일 총 4회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G2, G3
참여작가 :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예술가 및 외부 예술가
참여대상 : 인천시 공간디자인 관련 특수고등학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0명 내외(마감완료)
문의 : 760-1008

2014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국민건강보험은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

건강보험료 : 1.7%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5.89%(2013년) ⇨ 5.99%(2014년)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보험료율(5.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2.995%)씩 부담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5.99(100)	2.995(50)	2.995(50)	-
공 무 원	5.99(100)	2.995(50)	-	2.995(50)
사립학교교직원	5.99(100)	2.995(50)	1.797(30)	1.198(20)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동결)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6.55%)

인상배경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치매특별등급 신설,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MRI검사 보험적용 등 의료수가 인상 : 평균 2.36%
: 병원 1.9%,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의원 3.0%, 보건기관 2.7%,

문의 : 1577-1000

미추홀도서관 겨울프로그램 풍성

미추홀도서관은 1월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	장소	대상	문의
김진희 작가전	12월 26일(목)~ 1월 12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43
겨울방학특강	1월 6일(월)~ 1월 29일(수)	평생교육실(2층) 세미나실1,2(3층)	예비초1 ~6학년	440-6667
겨울방학 독서교실	1월 13일(월)~ 1월 16일(목)	세미나실1(3층)	초등3~ 4학년	440-6667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시	장소	대상	문의
북스타트 아기 천사들의 목(木)소리	매월 넷째주 목요일 11:00	꿈나무터(1층)	만 18개월 이하 영유아 및 부모	440-6647~8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 · 일 14:00	강당(지하 1층) ※홈페이지 참조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 · 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 · 반납	예술회관역(지하 2층) 미추홀도서관(1층 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lib.go.kr)를 참고하세요.

겨울방학교육프로그램 신청하세요

검단선사박물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2013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과정명	대상	운영일자	장소	내용
고고학올림픽	초등학교 3~6학년	1월 3일~24일	2층 발굴체험장	어린이발굴체험 교육프로그램
클레이아트로 만나는 선사시대	6세 아동~ 초등2학년	12월 31일~1월 21일	1층 상설도서관 2층 아동도서실	클레이를 이용해 선사유물 만들기

교육안내 및 신청

- 1박2일 운영, 회당 15명 교육
- 전문교육강사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진행
- 참가비 : 무료(고고학 올림픽 재료비 8천원, 클레이아트재료비 5천원)

문의 : 440- 6790, 6797

어린이, 청소년위한 신나는 겨울방학특강

인천 연수문화원은 아이들이 방학을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접수기간 : 각 수업 시작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접수 후 환불 불가)
장소 : 연수문화원(연수구청 7층)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문의 : 821-6229

파티쉐가 되어보자(고구마, 생과일 케이크 만들기) - 강사 이혜림
6세~초등 | 1월 6일(월) 13:00~14:20 | 2만원(재료비 별도)

디저트의 세계로 퐁당!(캐릭터 머핀, 쫄깃한 떡) - 강사 이혜림
6세~초등 | 1월 6일(월) 14:40~15:50 | 2만원(재료비 별도)

조물조물~ 흙으로 빚는 나만의 도자기 - 강사 최미선
6세~초등 | 1월 2일~1월 23일(매주 목) 15:30~16:30 | 2만원(재료비 별도)

엄마와 함께 만드는 천연 아로마테라피 - 강사 최미영
6세~초등 | 1월 2일~1월 23일(매주 목) 12:00~13:00 | 2만원(재료비 별도)

교과서 과학실험 미리보기 - 강사 박선희
예비3~4학년 | 1월 10일(금) 12:00~13:20 | 2만원(재료비 별도)

스토리텔리 과학공작 특강 - 강사 박선희
초등1~4학년 | 1월 10일(금) 13:40~15:00 | 2만원(재료비 별도)

※ 그 외 겨울학기 일반 정규 강좌(3개월 과정)도 부분 수강료 납부하고 수강 가능

'딩동이 치카푸카' 등 뮤지컬 공연

서구문화회관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유익한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신나고 재미있는 구강교육뮤지컬 '딩동이 치카푸카'
일시 : 1월 7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내용 : 딩동이는 과자와 탄산음료를 좋아하여 자주 먹지만 양치질은 하기 싫어하는 아이다. 그래서 입 냄새가 심해 유치원 친구들은 모두 딩동이와 같이 놀아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딩동이는 양치질을 하지 않고 엄마께 과자와 탄산음료수를 사달라며 조른다. 오늘도 딩동이는 엄마 몰래 양치질을 대충하고 그냥 낮잠을 자버리는데….

아기돼지 삼형제
일시 : 1월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재미있는 성교육예방뮤지컬
일시 : 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단체 6천원
문의 : 580-1155, 010-2898-0014

추운겨울 이기는 따듯한 도서관 행사

율목도서관은 추운 겨울을 따듯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기간 : 1월 1일~31일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0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겨울독서교실〉 Do Dream (두드림; 미래를 열어라)	1월 21일~24일	본관 2층 소극장	직업을 주제로 다양한 직업체험 및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영화상영〉 율목시네마	1월 1일~31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본관 2층 소극장	시민들을 위한 주말 영화상영
〈어린이상시프로그램〉 『이야기 보따리 술술』	매주 화, 목, 토 오후 4시	어린이실	사서, 자원활동가가 그림책 읽어주기 진행
〈어린이상시프로그램〉 『독서왕! 율목 밤톨이』	상시	어린이실	매월 최고점자 각 1인 선정 후 어린이 사서체험 및 선물(도서) 증정
〈어린이상시프로그램〉 독서통장 발급	상시	어린이실	
〈동아리 모집〉 직장인 동아리 모집	매월 2,4주 화요일 오후 7시	동아리실	주제별 선정도서를 읽고 토의 및 서평기부 활동
〈자원활동가 모집〉 2014년 율목도서관 자원활동가 1기 모집	상시	관내 및 인근 지역	도서배가 및 서가정리, 그림책 읽어 주기, 기타 재능 기부 ※자원활동확인서 발급
〈순회문고 및 기관대출〉 율목 북투게더	상시	신청기관	인천중구 내 소외계층, 도서 지역 맞춤형 도서대여 (도서최대500권, 비도서 5점 이내)

2014 인천시 블로그 기자단 모집

인천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가득한 '제2기 인천광역시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 : 인천지역 취재가 가능한 분으로서 평소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인천시민 및 인근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
모집인원 : 25명(일반인 10명,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5명)
모집기간 : 1월 31일(금) 24:00까지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활동기간 : 3월~12월(10개월)
활용내용 : 현장(행사)취재 및 인천시와 관련된 콘텐츠 발굴, 소개 등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블로그 기자단 지원서식
문의 : 440-3042, 3043

초등학생 위한 방학 교실 열어요

서부여성회관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학특강을 열고 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

내 아이의 감정, 어떻게 읽어줄까?
교육기간 : 1월 11일~2월 8일(매주 토요일, 총4회, 2월1일 제외)
교육대상 : 초등학생 학부모
수강료 : 1만2천원(재료비 1만5천원)

어린이 도자기 핸드페인팅
교육기간 : 1월 9일~2월 6일(매주 목요일, 총 4회, 1월 30일 제외)
교육대상 : 초등학생
수강료 : 1만2천원(재료비 3만원)
문의 : 458-7360~5

골목, 살아사라지다

수문통에서 백마장까지
인천골목이 품은 이야기

인천의 골목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깊게 패인 도시의 잔주름이다. 한 도시가 어떤 주름살과 어떤 피부, 어떤 눈빛을 갖게 되는가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닮기 때문이다. 인천 골목만큼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는 도시도 드물다.
해체되고 멸실되는 그 공간들을 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월간 '굿모닝인천'에 Old but New 시리즈를 연재해 스무 곳의 골목을 취재했다. 이 책은 당시 연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시 2013년 한 해 동안 골목을 샅샅이 탐방하고 취재해서 엮은 것이다. 여전히 골목 안에는 사람들이 내쉰 공기가 만들어낸 기억과 시간이 훑고 간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대로에는 '업무'가 있지만 골목에는 '일상'이 있다. 골목은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오래된 역사부터 바로 조금 전 벌어진 소소한 이야기까지 모든 걸 들려준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들었던 옛날이야기 같이 달콤하고, 때론 인생의 교훈과 지혜를 주는 잠언(箴言)처럼 묵직하다.
필자 유동현(본지 편집장)은 이 책이 시민의 지역 사랑 필독서로써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과 문화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골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창조적 공간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8305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마음의 서재	정여울	천년의상상	나만의 도서관을 향한 인문학 프로젝트
걱정하지마 잘될 거야	설기문	원앤원북스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 들여다보기!
기다려	체리 힐	규장	기다림에 지쳐 힘들어 하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
부자들의 생각법	하노 벡	갤리온	모르면 당하는 그들만의 경제학
왜 공부하는가	김진애	다산북스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물어야 할 질문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장대익	바다출판사	진화학자 장대익의 인간 탐구
중년의 발견	데이비드 베인브리지	청림출판	과학이 밝혀낸 중년의 놀라운 능력
명작순례	유홍준	눌와	옛 그림과 글씨를 보는 눈
100명 중 98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김남미	나무의철학	한국어 사용자의 필독서
파이브 데이즈	더글라스 케네디	밝은세상	삶에서 가장 뜨거웠던 로라의 5일!
쿠쿠스 콜링(1~2)	로버트 갤브레이스 (조앤 롤링)	문학수첩	조앤 K. 롤링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탐정 스릴러!
당신이 알아야 할 한국사 10	서경덕	엔트리	한국사 상식 10가지!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엄한정

아동문학가이자 시인. 1936년 인천(仁川) 출생으로 서라벌예술대학과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을 졸업했다. 1963년 '아동문학'에 동시가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으며, 1973년 '현대문학'에 시 '조춘 4수(早春四首)'가 추천되었다.
그의 작품은 동양적인 서정성을 산뜻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특색이 있다.

파이브 데이즈

더글라스 케네디 | 밝은세상 | 2013

저자는 유머러스하고 위트 넘치는 문체와 생의 본질에 다가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독자들을 사로잡아 왔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나를 찾는 5일간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현대인들의 고뇌와 갈등, 좌절과 희망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희망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

장대익 | 바다출판사 | 2013

'다윈의 식탁'을 통해 과학 저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종교전쟁'으로 과학과 종교의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한 진화학자 장대익의 저서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의 시각에서 인간의 본성을 살펴본다.

왜 공부하는가

김진애 | 다산북스 | 2013

저자가 인생에서 스스로 의문하고 스스로 답해온 과정을 거쳐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조언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15살, 공부밖에 먹고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공부비상구론'부터 MIT 유학시절을 다룬 '공부생태계론', 치열한 프로로 일했던 '공부실천론' 등 매 페이지마다 심장을 울리는 공부 진화기가 펼쳐진다.

쿠쿠스 콜링(1~2)

로버트 갤브레이스(조앤 롤링) | 문학수첩 | 2013

톱모델인 룰라 랜드리가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경찰 수사는 자살로 종결된다. 사설 탐정 코모란 스트라이크를 찾은 그녀의 오빠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젊은 모델이 살아가던 화려한 세계를 파고들수록 어두운 진실이 고개를 들고 끔찍한 위험이 가까워오는데….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올해 정부와 인천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지원하는 혜택이 늘어나나요?

시 보건복지국 다문화정책과(440–2867)에 확인한 결과, 국비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시비사업으로 고졸 미만 학력의 결혼이민자(남녀 무관)를 위한 검정고시 지원 계획이 있으며, 위기에 놓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족치료 사업(청소년 이탈, 학교 문제, 부부 갈등 등)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설 예보가 있네요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의 기상예보를 부탁 드려요

반갑습니다.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금일 오후 12시 이후 비 또는 눈이 올 확률이 70%이며 적설량은 1~4㎝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버스를 뒷문으로도 탈 수 있는데, 인천은 왜 안 되죠?

시 버스정책과(440–3965)에 확인한 결과 승하차 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뒷문 승차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승차는 앞문, 하차는 뒷문으로 정한 건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앞문 승차를 권해드립니다.

인천대공원에 대형 테마파크를 들여오는 것이 어떨까요? 인천시의 생각은 어떤가요?

시 공원녹지과(440–3653)에 문의한 결과, 인천대공원 내에 대형 테마파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1400번 버스를 타는데, 사람이 꽉 차서 못 타는 경우가 허다해요. 배차 좀 늘려주세요.

삼화고속 담당자(438–6813)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며, 문의하신 1400번 버스의 배차시간에 대한 조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032–120)로 전화 주시면 접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인천택시요금 기본료를 600원 인상한 것은, 어려운 경제에 서민들과 택시근로자들의 바람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천택시요금 인상 방안이 원만히 해결되어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나누었습니다.

인천다움 느끼는 2014년을 준비할래요

독자 김상호(부평구 부영로)

김상호님은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청년기자로 활동하며 인천을 누비고 다니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인천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커다란 도서관이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꺼내 생각에 잠기듯 인천은 내게 다양한 책을 제공한다. 초등학교의 추억부터 대학생 시절의 기억까지, 내 모든 생각의 기록이 담겨 있어서 소중한 도서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애틋해질 것 같다.

'굿모닝인천'이 좋은 이유 '굿모닝인천'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바로 지하철이다. 숨가쁘게 살아가는 시민들은 굿모닝인천을 읽으며 잠시나마 인천의 소식을 접한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시민을 연결하는 굿모닝인천. 앞으로도 성실한 '인천소식통'으로 활동하길 바란다.

인천에 바라는 것 항상 인천에 많은 것을 바라왔다. 하지만 2014년은 바라기보다 스스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취미인 글쓰기와 사진촬영을 이용해 인천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2014년을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몰랐던 '인천다움'을 한껏 느끼고 싶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시민이 원하는 '소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인천시 민선5기는 원도심 활성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고, GCF 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출범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금년에도 송도국제도시에 한진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동아제약, 셀트리온 등 입주기관을 중심으로 바이오 프론트를 구축하여 세계 바이오산업을 이끌어 갈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용유·무의 지구를 일괄 개발에서 부분 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조속히 추진하고, 지난해 9월에 착공한 로봇랜드가 2조원 이상의 국내 로봇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발전시켜 인천의 산업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몇 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비전과 발전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동안 이뤄놓은 국제기구 및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1인당 6만 달러 이상의 진정한 경제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인천의 격을 높일 여러 현안들도 엉킨 실타래를 풀듯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금년에는 인천시의 인구가 300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300만 시민과 함께하는 뜻 깊은 행사로 치를 것입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원도심을 만들어 도심간에 균형 발전을 이루고,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300만 경제수도, 도약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인천시민의 염원인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을 향해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정진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천시가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희망 주는 '역동적인 의회' 만들겠습니다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시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루는 시민본위의 의회 역할을 정착하여,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금년도 의정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의회', '열린 의회', '책임 의회'라는 의정활동 3대원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이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재정운영'에 앞장서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계속 연구·논의하고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균형 발전과 신흥상권 개발 등 일련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소통과 상생이 필요합니다. 시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장 건설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체계 구축 등 대회 운영 능력을 사전에 점검하여 만전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다섯째, '선진 지방의회 정착으로 시민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받들어 협의하고 통합·조정하여, 시민의 에너지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승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93만 시민 여러분! 갑오년 새해도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同舟共濟' 동주공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2014년 인천시의 시정철학이 될 사자성어로 '동주공제(同舟共濟)'가 선정됐다. 동주공제는 손자(孫子) 구지편(九地編)에 나오는 이야기로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이해와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는 인천시와 시민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주공제는 시민 공모, 시청의 자체 조사, 한문학자의 추천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미의 사자성어 중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작의 추천인은 한문학자 심은 전정우 선생이다.

인천시는 2014년 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모으고 함께 발전하고자,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2014년 인천시 사자성어를 공모했다. 사자성어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GCF 사무국 출범으로 국제적으로 높아진 인천의 위상을 알리며, 구도심과 함께 행복한 경제수도 인천을 완성하자는 의미를 담아 표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민공모에는 시민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174개의 사자성어가 들어왔다.

시민들이 공모한 사자성어에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시민과 시가 힘을 합쳐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인천의 위상을 높여 비전과 미래를 가진 도시로 발전해 가자는 내용이 많았다.

〈그외 추천된 사자성어〉

호기창신(好機創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운회창천(雲外蒼天)	구름 밖으로 하늘이 나타난다.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여민동락(與民同樂)	언제나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만복운흥(萬福雲興)	만 가지 복이 구름처럼 일어난다.
적수성연(積水成淵)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쌓여 연못이 됨.
작주형통(作主亨通)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온 시민이 주인된 입장에서, 솔선수범하고 적극 참여하면 모든 일이 잘됨.
성윤성공(成允成功)	진심을 다해 목표했던 일들을 끝까지 완수
보합대화(保合大和)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
동성상응(同聲相應)	같은 소리는 서로 응대한다는 뜻
호시우보(虎視牛步)	호랑이 눈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우직한 황소처럼 무게 있게 신중히 행동한다.
소창왕성(昭昌旺盛)	밝고 창성하게 된다는 뜻
승풍파랑(乘風破浪)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달린다.
유방백세(流芳百世)	향기가 백대에 걸쳐 흐른다는 뜻
진자필복(盡者必福)	최선을 다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계사광개(繼事廣開)	일을 잇는다는 의미의 계사는 내적 충실을, 넓게 연다는 의미의 광개는 외연적 확대를 뜻한다.
개심현성(開心見誠)	모든 정성을 다함

※ 그외 다수의 사자성어는 지면상 생략합니다.

배꼽시계, 동작 그만

"아직 배고프다."
욕망이 불타오를 때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올 한해는 모두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려서
"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라는 말을 서로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꼽시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2014년을 꿈꿉니다.

– 신포동 칼국수 골목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